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 **내용문의** : 기획조정실장 황영모 연구위원
(063-280-7132)

▪ **담당실장** :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보도시점 : 2018년 5월 24일(목)부터

남북농업교류협력과 지역의 준비, 세미나 개최

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, 농업협력지구 협동농장 개발 등 제시
농자재·농업기반·기술교류, 통일경작지·민관 공동추진체계 등 제안
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5월24일(목) 16시 전북연구원에서 '평화의 시대, 남북농업교류협력의 준비와 실천'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.
- 이번 세미나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'농업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의 대응방안'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.
- 세미나는 농민농업정책연구소 장경호 소장의 주제발표와 농민단체(한농연, 전농), 통일단체(전북겨레하나, 통일농수산사업단), 관계기관(전라북도, 전북농업기술원)의 전문가가 지정토론자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,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.
- 주제발표를 맡은 장경호 소장은 남북농업교류협력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접근할 것을 전제하면서, '남북식량교역-남북농업협력지구 공동영농사업' 등을 우선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

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'남북 공동식량계획과 공동농업정책' 등을 통해 농업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- 농민단체 성태근 회장(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)은 인도적 대북 쌀 지원에서 나아가 '농자재-농업인프라-유전자원연구-기술 교류'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 또 박홍식 의장(전국 농민회 전북도연맹)은 '통일경작지 사업'과 민관이 함께하는 '통일 협력기구 설치'를 제안하였다.
- 통일단체 김성희 사무총장(전북겨레하나)은 그동안 교류협력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추진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'민간과 지자체의 공동노력'을 강조하였다. 백정민 사무총장(통일농수산 사업단)은 '임농(林農)복합협동농장 개발사업'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.
- 전북농업기술원 노재종 실장은 우리의 앞선 농업기술로 '비료지원, 쌀·채소·과재류 생산단지 조성, 약초개발·산림녹화' 등을 제안하였다. 전라북도 송운석 사무관은 '농업생산기반시설조성지원,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, 낙농업기반 복합단지 조성,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, 축산물 가공·유통기지 구축' 등 전라북도가 발굴한 구체적 사업을 제안하였다.
- 한편 전북연구원은 '문화·체육분야'의 남북교류협력 준비를 위한 후속 세미나를 오는 5월31일 개최하는 등 전라북도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 등을 계속해서 논의·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 (끝)